

광주서 올려퍼진 아베정권 규탄 합성

양금덕 할머니 · 이용섭 시장 등 1000여명 참석 'NO 아베, 강제징용 사죄' 등 구호 외치며 비난

“더이상 침탈 당하지 않겠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을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당사 사죄하라” 일본의 경제침탈에 맞서 광주에서 아베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는 10일 오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이용섭 광주시장 등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제침탈 아베규탄,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 광주시민대회’가 열렸다.

시민대회 참석자들은 ‘NO 아베, 강제징용 사죄’, ‘역사왜곡 · 경제보복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

또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와 ‘도착예구 청산’ 등이 적힌 피켓을 높이 들며 아베정권을 규탄했다.

시민대회 한 칸에는 6m 높이의 ‘평화의 소녀상’ 설치돼 시민들의 합성을 들었다.

양금덕 할머니는 자유발언을 통해 “공부를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에

갔는데 미쓰비시 공장에 끌려갔다”며 “배고픔과 고통을 견뎌고 해방 후에 고향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의 고통을 잊지 못하고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는데 아베는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국민들이 힘을 모아 아베의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갑제 광복회광주전남지부장은 “일제 강점기 광주와 전남지역민들은 의병의 이름으로 일어나 싸웠다”며 “이제는 광주와 전남 시민들이 다시 한번 의병이 돼 ‘진일 정권을 세우겠다’는 아베의 망상을 부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아베의 속내는 경제침탈을 통해 일본 내 극우세력을 결집시켜 다시한번 한반도를 침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며 “더이상 대한민국은 그 때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우리는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어야



1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제침탈 아베규탄!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 광주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한다”며 “불행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한 고교생은 “일본 아베정권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면 한국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일본 제국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푹푹 뭉쳐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게 지지 않을 것이다”는 마음으로 싸우겠다”며 “도쿄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광주에서 시작돼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일본의 만행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시민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한일군사보호 협정 폐기, 역사왜곡 중단 등의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펼쳐들고 행진을 벌였다.

서은홍 기자

지병 있던 70대 미국 수구선수 쓰러져 사망

협심증과 동맥경화 지병이 있던 고령의 미국인 선수가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에 참가했다가 쓰러져 숨졌다.

11일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미국 수구선수 A(70)씨가 사망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40분께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미국과 호주 수구경기 4쿼터 도중 심장지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다.

이후 A씨는 응급 처치를 받고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회생하지 못했다.

A씨는 70~79세 그룹 수구경기 4쿼터 시작 24초 만에 쓰러졌으며, 호주 측의 페널티 슈트 후 이상 증세를 보였다.

A씨 유족은 A씨가 25년 전에도 같은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국제수영연맹 등과 A씨의 시신을 미국으로 운구하는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완도서 60대 실종자 9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완도군 신지도에서 1일 실종된 문모(62) 씨가 실종 9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전남 정읍계 양식장관리어선 J호(5.74)선장 오모(56) 씨가 신지도 북쪽 800m에 위치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전복 먹이를 주던 중 문 씨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문 씨는 발견 당시 줄무늬 상의와 짙은 색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채 가두리 양식장 사이에 있었으며 해경 구조대가 출동해 인양했다.

완도해경은 가족 확인과 지문 검사를 통해 실종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섬 바닷길 갇힌 50대 여성 운전자 구조

하루 두 차례만 길이 열리는 고령군 우도의 바닷길에서 고립된 50대 여성 운전자가 의용소방대에 의해 구조됐다.

고흥소방서는 11일 오전 4시 40분께 고흥소방서 남양면 의용소방대 우도 지대 신영호(58) 대원이 우도 바닷길에서 물이 차올라 고립된 운전자 A(58·여) 씨를 구조해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우도에서 육지로 나오던 중 바닷물이 차올라 구조를 기다리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원은 당시 자신의 0.7t 선박으로 낚시터를 갯바위에 내려준 후 우도로 돌아오던 중 바닷길에서 차량의 불빛을 보고 접근해 A 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해남서 상가 여주인 상대 강도미수 30대 검거

해남경찰서는 8일 대낮에 상가에서 흉기로 여성 업주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A(3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해남읍 모 가게에서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흉기를 들고 가게에 들어선 직후 업주가 팔을 잡으며 거세게 저항하자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가게 안팎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분석해 이날 오후 7시께 지역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지리산서 길 잃은 80대 4시간만에 구조

지리산에서 산행 도중 길을 잃은 80대가 4시간 만에 구조됐다.

10일 순천소방서 산악구조대에 따르면, 구조대는 이날 오후 8시께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 불무장등능선에서 길을 잃은 이모(84)씨를 찾았다.

이씨는 홀로 등산하던 중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길을 잘못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악구조대는 이날 오후 3시55분 이씨의 신고를 받고 구조대원 8명을 급파해 수색 4시간 만에 이씨를 발견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5·18 헬기사격 목격자들 오늘 전두환 형사재판 증인 출석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등 4~5명 출석할 듯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들의 증언이 이어진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오는 12일 오후 2시 20회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정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 씨 등 시민 4~5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이들은 39년 전 광주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목격담을 증언할 예정이다.

지난달 8일과 6월10일·5월13일 열린 재판에서도 각각 3명·6명과 5명의 시민이 증인으로 출석, 39년 전

그날의 기억을 진술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1980년 5월 헬기 사격 피해를 입고 이후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여부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실조사회를 광주시에 보냈다. 광주시는 실제 헬기 사격 피해 보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39년 전 광주로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 등을 범정으로 불러 신문하자

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는 단문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최남규 기자

헬기 띄워 섬 환자 병원이송 평균 94분

헬기를 띄워 섬 지역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기까지 평균 94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기 중에서는 소방헬기가 가장 많이 활용됐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1일 도시지역 응급환자 헬기이송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및 초기대응 강화방안을 내놨다.

우리나라는 3300여 개의 섬을 보유하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다. 섬에 거주하는 주민 수도 2017년 기준 약 8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나 된다.

그러나 섬 주민의 노령화 지수는 154.9로 전국 평균(100.1)을 넘는다. 병·의원 수는 인구 1000명당 0.29개로 전국 평균(0.92개)의 3분의 1 수준이다.

관리원은 도서 지역의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서해안 최북단인 백령도를 포함해 인천시 유인도의 65.7%(23개)가 속해 있는 웅진군의

헬기 이송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했다.

분석에는 2017~2018년 2년간 헬기 이송 385건과 인계점·계류장 위치정보 32건, 백령도·인천 기상정보 3만 5040건 등을 활용했다.

그 결과를 보면 응급환자와 이송 병원 간 직선거리는 평균 91.4km에 달했다. 환자 발생 신고부터 헬기 이송까지 소요 시간은 평균 94분이었다.

이송에는 ‘소방헬기’ (183건·48%)가 가장 많이 투입됐다. 뒤이어 ‘응급의료 전용헬기’ (일명 닥터헬기, 177건·46%), ‘해경헬기’ (25건·6%) 순이었다.

닥터헬기의 경우 해가 진 후 운행할 수 없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오후 4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응급이송 144건 중 99건(68.8%)에 소방헬기가 투입됐다.

섬별로는 웅진군 응급환자 이송 385건 중 73.2%(282건)가 백령도(88건)·덕적도(78건)·연평도(76건)·자월도(40건) 등 4개 섬에 집중돼 있었다.

이중 백령도는 닥터헬기 소관 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직선 거리가 187km 신고부터 이송까지는 평균 172분이 소요됐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